

새끼호랑이들 서바이벌

꿈의 무대를 위한 투수들의 마지막 도전이 한창이다.

30일 2013 프로야구가 개막을 한다. 27일 개막 엔트리가 마감되면 각 팀은 그동안의 테스트를 끝내고 전 투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KIA에서는 26개의 한정된 자리를 놓고 24년차 최향남(42)에서부터 21살의 신인 투수 박준표까지 엔트리 진입을 위한 마지막 어필을 하고 있다.

새 얼굴들은 마무리훈련과 스프링캠프 그리고 시범경기를 통해 전력을 점검받았다. 촉촉한 검증 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신인왕 후보'는 세 명이다.

좌완 임준섭(24·사이드암 박준표 그리고 내야수 고영우(23) 등 투수들은 첫 1군 무대를 눈앞에 두고 가슴이 '쿵쿵쿵'하다.

2년차 중견 신인인 좌완 임준섭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두각을 보이며 일찍부터 '2013시즌 박지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야수 고영우

목을 받은 선수다. 지난해 선동열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박지훈을 언급했다. 시범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박지훈은 본무대에서 선 감독의 기대대로 맹활약하며 프로 첫해 팀의 필승조로 자리를 잡았다. 올 시즌 선 감독의 입에서는 임준



임준섭

임준섭 - 시범경기 맹활약... 선발 후보까지 거론 고영우 - 공·수·주 고른 활약... 백업멤버 급부상 박준표 - 화려한 볼끝 자랑 KIA 불펜 이끌 '물건'

섭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윤석민의 공백이 발생한 마운드에서 임준섭은 선발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꿈의 무대 진출을 기정사실화했다. 고영우와 박준표는 뜻밖의 수확이다.

고영우는 마무리캠프에서 성실함으로 일단 합격자를 받았던 선수다. 빠른 발과 강한 어깨, 안정된 수비로 가

1군무대 밟고 猛虎될까



투수 박준표

능성도 보였지만 타격이 마지막 평가 항목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고영우는 시범경기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타격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과감한 스윙으로 홈런포를 날리기도 했고, LG의 특급 마무리 봉준근을 상대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등 공·수·주에서 고른 모습을 보이며 내야 백업 멤버로 급부상했다.

박준표의 오늘은 더 극적이다.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박준표는 일본 오키나와가 아닌 중국 징흥에서 겨울을 보냈다. 2군 캠프에서 올 시즌을 준비했던 박준표는 한대화 2군 총괄코치의 추천으로 1군 캠프 종료 직전 오키나와로 건너갔다. '화려한 볼끝'으로 선 감독의 눈길을 잡은 박준표는 시범경기에서도 주목받지 않은 피칭을 하며 주가가 치솟았다. 신용운에 이어 손영민·홍성민 등 '잠수함 필승조'가 떠난 자리에서 그 계보를 이을 물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막엔트리는 3·4·5차전을 책임질 선발 투수 명단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만큼 마지막 테스트 관문을 넘은 세 아가 호랑이는 일단 1군 덕아웃에 앉게 될 전망이다. 덕아웃을 넘어 꿈의 무대를 밟으며 KIA의 셋별로 빛날 수 있을지,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 골프여왕 가린다

40팀 출전 ... 4월 15일 함평 다이내스티서 열려

29일까지 참가 신청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 추어 골프대회(대표이사 차성만)가 다음달 15일 오후 1시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광주일보사 주최,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대표이사 차성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40팀을 선착순 모집해 샷건 18홀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함평 다이내스티 홈페이지(hpdynasty.c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화 접수(080-320-7700, 061-320-7777)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6만원(입금계좌와 농협 641087-51-043201-예금주(주)광주일보사 함평 다이내스티)이다.

조편성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동시 샷건방식으로 출발한다.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가 승인한 골프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컬 룰을 적용한다.

시상은 신페리오 경기결과 우승과 준우승 각 1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한다.

또한 스트로크 플레이(메달리스트) 우승(1명)을 비롯해 톱기스트(1명), 니어리스트(1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베스트 드레스상(1명)과 신페리오 3~7등에게 부상을 수여한다.

최초 출진원을 기록한 골퍼에게는 승용차 1대(상승 SM 3)를 경품으로 주며, 시상식 참가자중 행운상 10명을 추첨해 골프용품을 제공한다.

특히 신페리오 방식 우승자에게는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1년간 주중 그린피면제와 주말 회원대우, 준우승자에게는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1년간 주중 회원대우와 주말 준회원대우의 특전이 주어진다.

스트로크 플레이(메달리스트) 우승자에게도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1년간 주중 그린피 면제와 주말 회원대우 특전을 제공한다.

한편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은 세계적 명성의 로널드 프림(Ronald Fream)이 코스를 설계한 자연친화적 골프장으로, 전면 양잔디로 시공돼 사계절 라운드가 가능하다.

문의(061-320-7777) /함평=황운희기자 hwang@



타이거 우즈가 26일(한국시간) 미국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에서 열린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후 대회 주최자인 아널드 파머와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의 부활' 타이거 세계랭킹 1위 탈환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우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8·미국)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우즈는 경기를 마친 뒤 "내내 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즈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파72·7381야드)에서 속개된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우즈는 경기를 마친 뒤 "내내 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즈는 이날 우승으로 세계골프랭

킹에서 11.87점을 얻어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11.29점)를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랐다. 올해 PGA 투어에서 5개 대회에 출전해 3승을 거두며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보이는 우즈는 "나는 내 몸 상태만 괜찮다면 높은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2009년 11월 여성 팬력이 불거지며 이혼한 후 좀처럼 성적에 내지 못한 이유가 고질적인 무릎 부상 등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건강을 되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일단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 경기력도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우승 상금 108만 달러(약 12억원)를 받은 우즈는 시즌 상금 378만7600달러로 브랜트 스니데커(미국)의 285만9920달러를 추월해 선두로 나섰다. 페덱스컵 순위에서도 스니데커를 323점 차로 제치고 1위에서 순환 중이다. 우즈는 올해 거둔 3승을 모두 2위에 2타 이상 앞서며 수확했다. 경쟁

순위	이름	점수
▲ 1	타이거 우즈	11.87
▼ 2	로리 매길로이	11.29
▲ 3	저스틴 로즈	7.10
▼ 4	루크 도날드	6.86
▼ 5	브랜트 스니데커	6.39
- 6	루이스 우스투이젠	6.05
- 7	아담 스콧	5.82
- 8	스티브 스트리커	5.74
- 9	맷트 쿠차	5.38
▲ 10	키건 브래들리	5.25

자료/세계골프랭킹

선수들이 최종 라운드에서 그의 빨간 셔츠만 봐도 움츠러들던 전성기 시절이 떠올릴 만하다. /연합뉴스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쾌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 요 시 간 : 1시간 40분
쾌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민세포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일-제, 제-완 편도는 문의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쾌 속 선 :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 요 시 간 :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민세포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 불가, 합인승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완도 쾌속선 169,000원~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목포 크루즈 155,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라이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 3일자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 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착신)왕복선박료, TAX, 일정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완도-중식3회,목포-중식2회,목포-중식2회) 숙박(완도호텔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드립(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터미널-완도항 수송
현지 직불관광: 산방산 유람선(15,000원)공라리안방소 등(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 1만원, 2인실 1인실 3만원